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가족들은 장날모인 사람처럼
순식간에 지나가고 말리니,
다투거나 싸우지 말거라.

가족 간의 유대는 시자에서 스치는 사람들처럼 아주 짧은 만남과도 같습니다. 짧지 않은 인생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나는 갈등이 많습니다. 대가족은 강한 집착과 중요의 모습을, 또는 다 같이 너무 나도 쉽게 다투거나 분개합니다.

한 가정에 다툼의 바람이 들이치면, 순간적으로 일어난 냉담하고 집착적인 몇 가지 생각으로 시작된 긴장은 가족 일원 중 일부를 부추겨 마치 악마에 쫓겨처럼 서로 죽이거나 자살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족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말과 행동 등의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그리하여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여 불법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사찰에서는 많은 스님을 함께 모여 삽니다. 유대감을 느끼고 규율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조화로운 승가공동체는 가르침의 초석이 됩니다.

이러한 진실한 관계는 비단 승가뿐 아니라 스승과 제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완벽하게 순수한 관계를 지키고 계를 지키면 수행과정에서 오는 어떠한 장애에도 걸려 넘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어떠한 불화나 논쟁이 있다면 이는 중대한 실수입니다. '뉘첸'이란 금강승 법회가 있는 동안에 참가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 그 즉시 진행된 모든 법회 의식이 무효지물이 됩니다. 큰 우유통에 쥐 한 마리가 빠지면 우유를 마시지 못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총림·총무원장 선거 대중 참여 유도

조계종 쇄신위, 총림법·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정 제안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위원장 밀운, 이하 쇄신위)가 총림법과 총무원장 선거법 변화에 대한 최종 제안을 내놨다. 총림법과 총무원장 선거법 제안 모두 지역불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쇄신위는 1월 7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 국회의의장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총림법'과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에 관한 제안서를 수정·의결했다.

이날 쇄신위를 통과한 총림법 제안에 따르면 임회 구성에 있어 임회위원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현직 종회의원과 전직 주지, 원로, 비구니 스님(20%), 재가자(10%) 등 사부대중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쇄신위는 총림 주지의 임기를 4년으로 명시했다. 다만 임회 구성원 2/3의 의결에 따라 불신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총림의 개념도 확대했다. 선교를 관련 기관을 종합적으로 갖추는 기존 구성과 달리 교구 내 수탈사에 관련 기관을 분산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교구본사는 대정부 관계, 사부대중 조작성 지역활동을 담당하고 율원, 강원, 염불원의 대안으로 행원이거나 자비원 등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출가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기존 총림의 구성요

건인 선원, 강원, 율원, 염불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데 기인하고 있다. 현대적 총림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의다.

관심을 모았던 총림 주지 선출에 대해서

총림법

방장 권한 축소에 공감

임회 구성 민주화 중점

총무원장 선거법

'선추천 후선출'로 가다

비구니·재가 참가 확대

향후 과제는

여법한 대중참여 확대가

총림·선거법 실행 과제

는 임회가 총림주지를 복수추천하고 방장이 지명하는 방식과 방장이 추천하지만 임회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총무원장 선거법에 대해서 쇄신위는 '선

추천 후선출' 제도를 제안했다. 직선제 역시 함께 제안됐으나,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데 의견을 함께해 '선추천 후선출' 제도 제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선추천 후선출' 제도는 종단의 공신력 있는 인사와 종헌종법기구, 공직자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복수 추천하면 중앙총회, 본사 주지, 교구총회 등으로 선거인단을 꾸려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쇄신위원들도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쇄신위원 지한 스님(기본선원장)은 "매우 발전적인 제안이다. 하지만 교구총회에는 선교를 대표들과 비구니, 재가자까지 모두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로의원 월탄 스님도 "교구본사 주지가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선추천 후선출' 제도는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통과된 쇄신위의 제안서는 총무원과 중앙총회에 제출됐으며, 총무원은 이를 바탕으로 오는 3월 중앙총회에 법령 개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 같은 쇄신위의 법령 개정 제안은 사부대중 참여하는 임회와 교구총회를 구성을 추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총무원-본사-말사라는 수직적 행정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큰 의의다.

쇄신위 소위원장 도법 스님은 7일 간담회에서 "총림법 개정은 사부대중 참여하는 임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은 교구총회를 민주적으로 만들자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불교가 책임감을 가지고 총무행정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침체된 지역불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의미를 밝혔다.

하지만 교구총회에 비구니 스님, 재가자들을 참여하는 것은 교구법, 지방 중정법 등의 후속 법령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이며 상당한 시일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총림법과 총무원장 선거법의 성패는 토대가 되는 후속 법령들의 개정에 달려 있는 것이다.

중앙총회 부의장 법안 스님은 "총림법은 그간 꾸준한 논의가 있던 만큼 3월 총회 상정은 무난할 것"이라며 "총무원장 선거법은 후속 법안 논의까지 포함해 늦어도 9월 총회까지 성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7차 회의에서는 쇄신위원장 소임 사의를 밝혔던 밀운 스님(원로의장)이 위원들의 요청으로 계속 위원장직을 맡기로 결의됐으며, 쇄신위원이었던 주경 스님이 기획실장 임명됨에 따라 원로의원 혜승 스님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종단 50년史 발간...10월 학술대회

인터뷰-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깨달음'은 불교 수행자라면 누구나 꼭 한번 평생에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이자 과업이다. 대한불교 관음종이 이 '깨달음'을 주제로 올 10월경에 책을 편찬하고 학술대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종단 복지위원회를 표방하며 사회복지법인 서울복지원과 종단 직할사찰인 선계사와 연계한 복지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1월 9일 서울 송인동 묘각사 내 총무원 접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골자로 한 신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파 스님은 "부처님의 정법을 펼치는 우리 불교는 21세기에 꼭 필요한 종교가 되어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향한 꾸준한 정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로 잡았으며, 국내외 30여 학자들에게 고견을 들어 결과물을 책으로 묶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파 스님은 "개인적으로는 올해가 불교계에 몸담은지 50주년이 되는 해

인만큼 행장을 통해 관음종의 50주년 종단사를 책으로 펴낼 예정"이라며 "아울러 올해로 10년째인 외국인 템플스테이는 2002년 월드컵 당시 부족한 숙박시설의 일환으로 시작했지만 매년 1천여명 이상이 참가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 10년을 정

- 한부모가정 대상 힐링캠프
- 복지원 미혼모 시설 마련
- 사이버 법당·군포교 주력
- 올해 예산 40억여 원 확정

리한다는 의미에서 역시 책으로 출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도 다채롭게 진행된다. 홍파 스님은 "사회적으로 이혼이나 미혼모 가정이 늘고 있는 추세라 한부모가정에 대한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며 "그동안 푸드뱅크 사업에만 치중했던 서울복지원에 2억5천여만원의



종단 지원금을 투입해 90여 한부모가정 자녀를 위한 힐링캠프를 개최하고 철원 선계사에 미혼모를 위한 쉼터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음종은 철원 지역의 육군 3사단과 자매결연을 맺어 지속적인 군포교 활동도 펼친다. 또한 대중포교를 위해 스마트폰과 연계한 사이버법당 마련, 서울불교문화대학의 활성화도 꾀하며, 도제양성을 위한 수계산림과 재교육프로그램도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관음종 중앙총회는 제50차 회의를 열어 40억 1500만원의 올해 사업 예산으로 확정했다. 김주일 기자

본사 총림 추진 본격화

신흥사, 7일 총림 지정 결의

제3교구본사 신흥사가 '총림' 지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신흥사(주지 우송스님)는 1월 7일 설법전에서 제1차 교구총회를 열고 오는 3월 개최될 예정인 제193회 중앙총회 임시회 통과를 목표로 '설악총림' 지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신흥사 주지 우송스님은 교구총회 인사말에서 "신흥사는 한국 간화선의 대표적인 수행도량으로서 총림 지정의 당위성은 충분하다"며 총림 지정 의지를 피력했다. 신흥사는 항성선원과 무궁선원을 운영중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강원과 율원 등을 개원해 총림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흥사는 이날 설법전에서 불기 2556년도 동안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한편, 조계종 총림실사위원회(위원장 원학)는 15일부터 18일까지 덕숭, 해인, 영축, 고불, 조계총림 등 5대 총림과 지난해 새봄계 총림으로 지정된 동화사, 쌍계사, 범어사 등 총림 8곳을 직접 방문해 총림 실사를 진행한다. 신종일 기자

세계 침구 한의대학, 중국1위 중의대학

중국 남경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중·고생 조기유학

1. 모집요강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1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신문, 영어학 등

2.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4.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3년 1월 30일

5. 문의처

-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 팩스 : (02) 511-2025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 경 중 의 학 대 학
(南京中醫藥大學) 02)511-1080,2026

1. 입학대상

- 초등학교 5학년 - 고등학교 2학년

2. 제출서류

- 가족등본, 여권, 여권용 사진7매, 최종재학증명서

3. 제출기한

- 2월 27일까지

4. 유학생특전

- 호텔기숙사,한식제공,3월 어학후 9월 입학, 고교졸업 후 대학입학 보장
- 1년내 신 HSK(중국어 수평고사 : 4, 5급 보장)

5. 출발일자

- 3월 8일

6.한국상담처

- 02) 511-2026,2027, 010-4552-5281

인터넷홈페이지 : www.njsdfx.co.kr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